



Xi 2022 개정 교육과정
story

자이스토리

낯선 작품 해석 능력을 키우는
3단계 독해 공식

고등 국어
문학 독해
완성

수경출판사
*수업용 자료용
정의를 표합니다.



구성과 특징 [내신 + 학평 + 수능 대비 특강]

1 갈래별 문학 독해 학습 18일 완성

▶ 흥미로운 작품 구성

학력평가와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 출제된 기출 문학 작품 중 꼭 알아야 하는 작품들을 선별했습니다.

▶ 갈래별 문항 분류 (시, 시 복합, 소설, 극 문학)

- 1) 시 - 현대시 2일, 고전 시가 3일, 시 복합 3일
- 2) 소설 · 극 문학 - 현대 소설 3일, 고전 소설 3일, 극 문학 1일

* 출처 표시: 교육청 - 실시 연도, 평가원 - 대비 연도
예) 2026 실시 3월 학평 1 (고3)
2026년 3월에 실시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번
2027 대비 6월 모평 1 (고3)
2026년 6월에 실시한 평가원 모의고사 1번

2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과 기본 문제

▶ 갈래별 독해 공식

갈래별 독해 공식을 통해 독해를 할 때 무엇에 집중하며 읽어야 하는지를 익힐 수 있습니다.

▶ 독해 공식 훈련 기본 문제

독해 공식을 익힐 수 있도록 갈래별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요소를 기본 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독해 공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01 ● 중심 시간, 갈등 파악하기 (2026 실시 3월 학평)
읽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공은 별선의 만류에도 모친과 동생의 복수를 위해 참작하였다.
② 별선은 잔치에 다녀온 학공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
③ 별선은 학공과 자신이 모두 같은 날 밤 죽임을 당 것이라고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다.

3 독해 방법을 단계별로 익히는 '지문 분석 특강', '문제 풀이 특강'

▶ 지문 분석 특강

작품을 쉽고 빠르게 독해하기 위해서 갈래별 독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줍니다.

▶ 문제 풀이 특강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 줍니다.

지문 분석 특강 <내용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우시오>

130 계곡 + 문제 <보기> 체크

계곡: (가)는 <고운 심장>이고, (나)는 <스승의 구두>이다. 이를 통해 (가)와 (나)는 각각 '고운 심장'과 '스승의 구두'가 상징하는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04번 <보기> 분석

- (가):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 상징적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냄.

- (나): 산업화 시기의 급변하는 현실 → 특정 인물의 모습을 관찰하여 현실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냄.

★ 현대시 독해 공식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지문 속 '나', '우리'는 화자를 가리킨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중심 대상: 계곡 혹은 반박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다.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보다', '만나다'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 (가)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함

읽어본은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경지함.

(가)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하고 억압적인 지구가 경지하는 종말의 이미지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나)의 심장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현실 변화의 의지이다.

300 (나)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나)에서도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나)의 화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매일같이 날아가는 스승의 모습을

문제 풀이 특강

01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가)와 (나)를 읽으며 각각의 시작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드러난 구절을 주목한다.

① (가)의 화자는 극한의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미래의 문제 상황을 예측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날개가' '읽어본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화자가 '스승'이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기를 바라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④ (나)에서 '구두', '스승'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날아가는 대상들이다. 하지만 (나)의 화자가 이들을 안쓰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화자는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경지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서러울 리 없다고 하는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스승'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는 '날'은 구두에 비유하며, 두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방법을 사용된 부분 찾기

① 3% ② 76% ③ 6% ④ 5% ⑤ 7%

04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① <보기>에서 (가)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시라고 했다. 따라서 (가)의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경지'하는 극한 상황은 시대적 현실로 인한 절망적 상황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가)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상징적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고 했다. (가)에서 '마침' '고운 심장을 지닌' '나'는 생명력을 지닌 대상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희망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나)는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한 시라고 했다. 따라서 (나)의 '정대동 중앙시장에' '하루를 보노'는 '하루'가 '하루'라는 것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새를 들랑거리는' '하늘'을 '하늘'로 바꾸고 날아가는 스승은 현실로 돌아와서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스승'이다. 화자와 스승이 현실이

4 문학 개념어 특강 + 확인 문제 [6회]

• 갈래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학 개념어를 제시했습니다.

• 확인 문제를 통해 문학 개념어의 쓰임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1. 시의 표현 방법 - 비유와 상징, 정서 표현, 이미지(상상)

01 비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직유법 & 은유법

• 직유법: '~처럼', '~같이', '~같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적으로 빗대는 방법

•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A는 B이다'의 형태로 마치 두 대상이 같은 것처럼 나타내는 방법.

1. 원관념과 보조 관념

• 원관념: 시인이 본래 표현하려는 대상

• 보조 관념: 원관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대상

• 은유적 표현 방법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01 시의 전개 방식

01~04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시오.

① 새와 짐승은 숲의 울고 강산은 쟁그리네
②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③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연사를 생각하니
④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

05 '목련꽃', '모시', '서리는 모두 ()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06 읽글은 계절의 ()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 DAY별 필수 어휘와 개념어를 총정리했습니다.
- 한자어의 경우, 한자의 음과 뜻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휘 + 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ㅍ 표시하고, 헛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ㅍ 표시

▶ 가계 ▶ 집 ▶ 지주 ▶ 이주 ▶ 재계
 대대로 이어 내려온 한민간의 계통
 그 ▶의 ▶가계는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의
 집안이다.

▶ 가림 ▶ 관 ▶관 ▶관 ▶관 ▶관 ▶관
 세로 따지면 가족학에 거두어 들임.

▶ 겸어 ▶ 겸 ▶겸 ▶겸 ▶겸 ▶겸 ▶겸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추는 태도가 있다.
 그 ▶의 겸허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 경박 ▶ 경 ▶경 ▶경 ▶경 ▶경 ▶경
 연연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
 오랜만 직장인 다스 ▶경박해 보인다.

▶ 경부 ▶ 경 ▶경 ▶경 ▶경 ▶경 ▶부

▶ 관철 ▶ 관 ▶관 ▶관 ▶관 ▶관 ▶철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고 목적의 기어이
 이루어진다.

▶ 팔시 ▶ 팔 ▶팔 ▶팔 ▶팔 ▶팔 ▶시
 엄밀하여 확실하게 판단하다.

▶ 사삼 ▶ 사 ▶삼 ▶삼 ▶삼 ▶삼 ▶삼
 새삼으로 이렇게 ▶팔시해도 되는 집

소설

2026-07-23 오전 9:15:00



이 책의 차례

I 시

[현대시]

DAY 01	· 청산행 (이기철),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김현승)	10
	+ 지문 분석 특강	12
	+ 문제 풀이 특강	13
	· 고향으로 간다 (김용호), 그 골목 잃어버리고 (나희덕)	14
DAY 02	· 금붕어 (김기림), 길 (정희성)	16
	· 채전 (유치환), 음지의 꽃 (나희덕)	18
	+ 문학 개념어 특강 ①	20

[고전 시가]

DAY 03	· 북새곡 (구강), 이 시름 저 시름 (작자 미상), 강원도 설화지를 (작자 미상)	24
	+ 지문 분석 특강	26
	+ 문제 풀이 특강	27
	· 화전가 (작자 미상), 공명을 헤아리니 (작자 미상), 석문가 (채헌)	28
DAY 04	· 갑민가 (작자 미상), 녹양방초 언덕에 (작자 미상)	30
	· 일동장유가 (김인겸), 화암구곡 (유박)	32
DAY 05	· 풍파에 일렁이던 배 (정철), 심의산 서너 바퀴 (정철), 호아곡 (조존성)	34
	· 만전춘별사 (작자 미상), 시름을 꺼내 들어 (김수장),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이정보)	36
	+ 문학 개념어 특강 ②	38

[시 복합]

DAY 06	· 시의 시간과 공간, 길 (김기림), 한계 (천양희)	42
	+ 지문 분석 특강	44
	+ 문제 풀이 특강	45
	· 한거십팔곡 (권호문), 추억에서 (박재삼), 시에서의 리듬	46

DAY 07	· 그 나무 (김명인), 나무 (김기택), 노인과 꽃 (정지용)	48
	· 북방에서—정현웅에게 (백석),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생가 (문태준), 이문원노종기 (유본예)	51
DAY 08	· 도산십이곡 (이황), 지수정가 (김득연), 겸재의 빛 (김훈)	54
	· 우부가 (작자 미상), 타농설 (성현)	57
	+ 문학 개념어 특강 ③	60

II 소설 · 극 문학

[현대 소설]

DAY 09	· 독가촌 풍경 (박태순)	66
	+ 지문 분석 특강	68
	+ 문제 풀이 특강	69
	· 나룻배 이야기 (하근찬)	70
DAY 10	· 도요새에 관한 명상 (김원일)	72
	· 배짱을 주제로 한 변주곡 (이청준)	75
DAY 11	· 표구된 휴지 (이범선)	78
	· 아버지의 땅 (임철우)	81
	+ 문학 개념어 특강 ④	84

[고전 소설]

DAY 12	· 수궁가 (작자 미상)	88
	+ 지문 분석 특강	90
	+ 문제 풀이 특강	91
	· 홍길동전	92
DAY 13	· 이화전 (작자 미상)	94
	· 정을선전 (작자 미상)	97
DAY 14	· 광한루기 (수산)	100
	· 김원전 (작자 미상)	103
	+ 문학 개념어 특강 ⑤	106

[극 문학]

DAY 15	· 공동 경비 구역 JSA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110
	+ 지문 분석 특강	112
	+ 문제 풀이 특강	113
	· 불모지 (차범석)	114
	+ 문학 개념어 특강 ⑥	116

III 문학 실전 모의고사

DAY 16 1회 모의고사 [15문항] 122

- 숙영낭자전 (작자 미상)
-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만흥 (윤선도), 우언 (이덕무)
- 골목 안 (박태원)
-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김광규),
별을 굶다 (김혜순)

DAY 17 2회 모의고사 [15문항] 130

- 상사동기 (작자 미상)
- 목동가 (임유후), 강호연군가 (장경세),
방언 (장유)
- 무성격자 (최명익)
- 강 건너간 노래 (이육사), 묘비명 (김광규),
삶의 반영으로서의 시

DAY 18 3회 모의고사 [15문항] 138

- 미스터 방 (채만식)
- 영삼별곡 (권섭), 풍서기 (김매순)
- 이대봉전 (작자 미상)
- 문학적 시간, 고향 의상 (조지훈),
결빙의 아버지 (이수익)

* 어휘+개념어 총정리 147

* 지문 분석 특강 정답 152

*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정답 152

문학 개념어 특강

I 시

- 1 시의 표현 방법 ① 20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22
- 2 시의 표현 방법 ② 38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40
- 3 시의 전개 방식과 운율 60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62

II 소설·극 문학

- 4 소설의 서술 방식 84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86
- 5 소설의 전개와 구성 방식 106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108
- 6 문장의 표현 방식 116
문학 개념어 특강 확인 문제 118





[현대시]

정형시의 율격을 벗어난 자유로운 운율과 형식을 특징으로 하는 시로, 1910년대 이후부터 지어진 시를 통틀어 현대시라고 한다.

[고전 시가]

상고시대의 고대 가요부터 조선시대의 시조에 이르기까지 개화기 이전 우리나라의 시와 노래를 통틀어 고전 시가라고 한다.

[시 복합]

시와 수필 등 서로 다른 갈래의 작품이 함께 묶여 출제되거나, 시와 제시문이 함께 출제되는 것을 시 복합이라고 한다.

* 수필: 글쓰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나 체험한 것을 자유롭게 쓴 글

오 나의 비너스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무지개가 몽글몽글 피어나고
너를 보면 내 눈에서
숨사탕이 뱅글뱅글 솟아나고
너를 안으면 내 가슴에
화산이 폭발해
이 세상 모든 설렘을 다 모아도
너 하나만큼은 못할 거야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지네
심장은 북처럼 쿵쿵 울리네
너를 생각하면!

- 화자: '나', '내'
- 중심 대상: '너'
- 상황: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
- 정서, 태도: '너'를 보면 설레는 마음과 '너'에 대한 사랑을 열렬히 표현하고 있음.
- 표현상 특징-은유법: 사랑하는 사람인 '너'를 '비너스'라고 표현함.
- 표현상 특징-음성 상징어 사용: '너'를 볼 때의 황홀한 감정을 숨사탕이 뱅글뱅글 솟아난다고 표현함.
- 표현상 특징-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운율을 형성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강조함.

I 시 詩

『시』를 독해하는 방법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나’, ‘우리’, ...)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즉 화자를 찾으면 시인의 생각인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중심 대상**: 화자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중심 대상을 찾으면 시의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화자의 상황, 정서·태도 파악하기

- **상황**: 시 속에서 화자가 놓여 있는 환경
시인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자 시 속 상황을 정합니다.
- **정서**: 화자가 중심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
- **태도**: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정서에 대해 보이는 어떠한 자세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알면 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표현상 특징**: 시인이 시를 쓸 때 사용하는 직유법, 은유법 등의 표현 방법
시를 읽을 때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면 시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강조하여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 복합』을 독해하는 방법

1) 작품별 갈래 확인하기

시 복합에서는 어떤 갈래의 작품끼리 묶여 출제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독해 공식에 따라 작품 읽기

각 작품의 갈래를 확인한 후, 갈래별 독해 공식에 따라 작품을 읽습니다.

* 수팔: ① 중심 대상 찾기

- **중심 대상**: 글쓴이가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
- ② 글쓴이의 생각, 태도 파악하기
- **생각**: 글쓴이가 중심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 **태도**: 글쓴이가 중심 대상에 대해 보이는 자세

③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서술상 특징**: 글쓴이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

* 제시문: ① 내용 정리: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것을 문단별로 간략히 정리하여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현대시]

- Day 01** • 청산행 (이기철),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김현승)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 고향으로 간다 (김용호),
그 골목 잃어버리고 (나희덕)
- Day 02** • 금붕어 (김기림), 길 (정희성)
• 채전 (유치환), 음지의 꽃 (나희덕)
+ **문학 개념어 특강 ①**, + **확인 문제**

[고전 시가]

- Day 03** • 북새곡 (구강), 이 시름 저 시름 (작자 미상),
강원도 설화지를 (작자 미상)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 화전가 (작자 미상),
공명을 헤아리니 (작자 미상), 석문가 (채현)
- Day 04** • 갑민가 (작자 미상),
녹양방초 언덕에 (작자 미상)
- 일동장유가 (김인겸), 화암구곡 (유박)
- Day 05** • 풍파에 일렁이던 배 (정철),
심익산 서너 바퀴 (정철), 호아곡 (조존성)
- 만전춘별사 (작자 미상),
시름을 꺼내 들어 (김수장),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이정보)
+ **문학 개념어 특강 ②**, + **확인 문제**

[시 복합]

- Day 06** • 시의 시간과 공간,
길 (김기림), 한계 (천양희)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 한거십팔곡 (권호문), 추억에서 (박재삼),
시에서의 리듬
- Day 07** • 그 나무 (김명인), 나무 (김기택),
노인과 꽃 (정지용)
- 북방에서—정현웅에게 (백석),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생가 (문태준),
이문원노종기 (유본예)
- Day 08** • 도산십이곡 (이항), 지수정가 (김득연),
검재의 빛 (김훈)
- 우부가 (작자 미상), 타농설 (성현)
+ **문학 개념어 특강 ③**, + **확인 문제**



DAY 01 [현대시]

I 시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일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01 ㉡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청산으로 향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서쪽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상상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저녁에 홀로 차를 마시며 느끼는 쓸쓸함을 토로하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사실과 관습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02 ㉤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2025 대비 6월 모평 31 (고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03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2025 대비 6월 모평 32(고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② ㉡은 ‘호을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은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은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
- ⑤ ㉠은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은 ‘달갑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04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2025 대비 6월 모평 33(고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05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2025 대비 6월 모평 34(고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을,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의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어휘 풀이

(가)

- 인가: 사람이 사는 집
- 야성: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나)

- 고즈넉하다: 고요하고 아늑하다.
- 달갑다: 거리낌이나 불만이 없어 마음이 흡족하다.



지문 분석 특강 <내용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우시오.>

1st 제목 + 문제 <보기> 체크

- **제목:** (가)의 제목은 <청산행>이고, (나)의 제목은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이다. 이를 통해 (가)는 청산, (나)는 사실과 관습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05번 <보기> 분석**
 - (가): 세속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림.
 - (나): 화자가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며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 현대시

독해 공식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지문 속 '나', '우리'는 화자를 가리킨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중심 대상:** 제목 혹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다.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보다', '만나다'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정서:** '좋다', '슬프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한다.
- **태도:** 긍정적·부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화자의 어조, 비유적 표현, 시상 전개 방식 등 지문에 어떠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본다.

2nd (가)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가)에서는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가)의 화자는 청산에 들어와 속세에서의 삶을 돌아보다가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중심 대상은 (1) _____ (이)다.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가)의 화자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들어와 살고 있다.
- **정서, 태도:** (가)의 화자는 청산에서 속세를 생각하며 속세에 대한 (2) _____ 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 가늘게 흠여지는 저녁 연기'에서 직유법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청산에서 내려다보는 속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자연물인 '돌'을 의인화하여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속세
인가를 내려다보며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함. →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

자연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음. →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고자 함.

(가)는 청산에 들어와 살게 된 화자가 여전히 속세의 사물과 인가 등을 언급하며 속세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연물과 하나가 되어 청산에서의 삶에 완전히 (3) _____ 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무리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제**는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소망'이다.

3rd (나)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나)에서는 화자 '나'가 드러난다.

(나)의 화자는 차를 마시는 행위가 사실이자 (4) _____ (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의 중심 대상은 '사실과 관습(존재에 대한 인식 태도)'이다.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나)의 화자는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차를 마시며 상념에 잠겨 있다.
- **정서, 태도:** (나)의 화자는 자신과 세계의 인식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에 회의를 느끼며, 앞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서 (5) _____ 을/를 인식하고자 한다.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다만', '뿐' 등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를 사용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나)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과거의 인식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꽃이 예쁘게 피는 것은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임. → 세상의 존재를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 인식함.

→
변화

현재의 인식
물은 물이듯, 나는 나이고 차를 마시는 것은 다만 사실이며 관습임. → 세상의 존재를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인식함.

(나)는 존재에 대한 인식론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인식해 왔던 화자는 앞으로는 절대자가 아닌,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새로운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의 **주제**는 '대상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01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가)와 (나)를 읽으며 각각의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드러난 구절에 주목한다.

- ① (가)의 화자는 청산에서 숙세를 생각하고 있다. 즉 화자는 이미 청산에 와 있는 상태이다.
- ② (가)의 화자는 서쪽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나)의 화자는 저녁에 홀로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해 쓸쓸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다.
- ④ (나)의 화자는 차를 마시는 것이 사실이자 관습이라고 했으므로, 사실과 관습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숙세를 떠나 들어온 청산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절대자와의 관계가 아닌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세상 인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두 화자 모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02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부분 찾기

[① 8% ② 7% ③ 11% ④ 10% ⑤ 62%]

- ① (가)는 ‘돌들’을 인격화하여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다만 사실일 뿐’에서 ‘다만’, ‘뿐’이라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를 사용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산길을 걷다가 서쪽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보고 숙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달리 (나)가 화자인 ‘나’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에서는 화자가 자연물에 정서를 투영하거나 대상에 친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03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① 6% ② 6% ③ 9% ④ 71% ⑤ 5%]

㉠과 ㉡를 포함해 그 앞뒤 구절까지 모두 확인하고,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 ① (가)에서 ㉠ ‘관습들’ 자체가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나)에서 ㉡ ‘관습’이 그 행위 주체인 화자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③ (가)의 ㉠ ‘관습들’은 ‘서쪽 마을’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이 아닌, 숙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의 ㉠ ‘관습들’은 화자가 숙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청산에서의 삶을 여러 번 다짐했다가 포기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화자의 내면 갈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 ‘관습’은 화자가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차를 마시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 ‘관습들’과 관련해 화자가 자신을 연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 ‘관습’을 통해 화자가 자기 위안을 얻는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① 2% ② 5% ③ 75% ④ 6% ⑤ 8%]

- ① ㉠ ‘호리던’은 화자가 청산에 와 있던 며칠 동안은 산길이 흐려서 잘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 ‘가늘게’는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③ ㉢ ‘비비는’은 숙세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물인 ‘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 ‘스스로’는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가 달갑고 즐거워서 하는 주체적인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 ‘이제는’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만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05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가)와 (나) 감상하기

[① 12% ② 16% ③ 34% ④ 27% ⑤ 7%]

*<보기> 분석

	(가)	(나)
대상에 대한 인식	‘자연’ →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옴.	‘절대자’ →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준거로 인식되어 옴.
화자의 정서와 태도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가 점차 동화됨.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려 함.

- ① (가)에서 청산에 온 화자가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하는 것은 숙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 화자의 심리를 보여 준다.
- ② (나)에서 화자는 차를 마시는 행위가 하나의 사실이자 관습으로,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과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된다고 했다. 이는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 ③ (가)에서 화자는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호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고 했다. 이는 청산에 지내는 동안 자연에 친숙해진 화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 준다. (나)의 화자는 ‘앞으로 남은 십 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사실에 기초해서만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 자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가)에서 ‘여울물’과 ‘때까치’는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숙세에 미련을 갖고 있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된 것이다. (나)에서 화자가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 것은,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가)에서 화자는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순수한 자연물과 함께 잠들고 싶다고 하며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물에게 물은 물일 뿐’이라고 하며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



2. 시의 표현 방법 - 강조, 변화

I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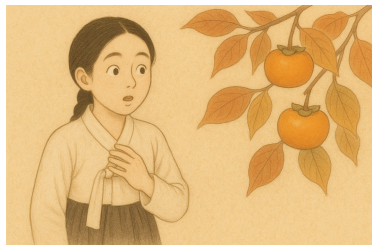
문학 개념어 특강

01 강조: 화자의 의도나 정서를 더욱 인상 깊고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반복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어나 시구,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붙은 감잎 날아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찾아서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 김영랑, 〈오-매 단풍 들것네〉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정서를 강조함.

이 시에서 첫 번째 ‘오-매, 단풍 들것네.’는 빠른 계절의 변화에 대한 누이의 감탄을, 두 번째 ‘오-매, 단풍 들것네.’는 다가올 추석과 겨울 농사 준비에 대한 누이의 걱정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 ‘오-매, 단풍 들것네.’에는 누이가 잠시 걱정은 내려두고 계절의 변화를 맘껏 즐기기를 바라는 화자의 위로가 반영되어 있다.

1 열거와 반복

일반적으로 유사한 속성의 시구를 셋 이상 늘어놓은 것은 열거, 같은 시구를 늘어놓은 것은 반복에 해당한다.

열거(나열) 유사한 속성의 시구나 상황을 연달아 늘어놓아 시적 상황을 강조하는 방법

연쇄 앞 구절의 시어를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하여 이어 가는 방법

과장 표현하려는 대상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방법

어이 못 오턴가 무슨 일로 못 오턴가
너 오는 길 위에 [무쇠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단단히 묶어 놓고 쌍배목의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로
깊이깊이 잠갔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 열거
한 해도 열두 달이요 한 달 서른 날에 나를 찾아 올 하루가 없으랴 - 작자 미상

영탄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호격 조사 등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호격 조사 ‘이여’ →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김소월, 〈초혼〉

참고 한자어 풀이

- 대조 [對 마주할 대 照 비출 조]
- 영탄 [詠 읊을 영 嘆 탄식할 탄]
- 점층 [漸 차차 점 層 층 층]

이 시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표현한 시이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장애훈을 상상하는 데에서 과장이 쓰였다. 그리고 ‘길 위에 무쇠 성’이 ‘성 안에 담’, ‘담 안에 궤’, ‘집 안에 뒤주’, ‘뒤주 안에 궤’, ‘궤 안에 너’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데에서 연쇄가 나타난다. 이렇게 ‘너’가 오지 못하게 만든 상황을 성부터 궤까지 연달아 늘어놓는 데에서 열거가 사용되었다.

대조 서로 반대되거나 눈에 띄게 다른 낱말이나 어구를 맞세워 놓아 주제를 강조하거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과 대조 → 화자와 절대자 간의 만남을 가로막는 괴로움을 의미함.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검은 구름’과 대조 → 깨달음을 선사하는 순수의 세계

점층 어구나 문장에 담긴 뜻을 점점 더 고조시키면서 확대하는 방법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일천 석을 실은 배가 노도 잃고, 닻도 잃고, 돛대에 맨 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는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사방은 검고 어둡게 저물어 천지는 적막하고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 도사공의 상황이 점점 위험해짐.
엇그제 임과 이별한 나의 마음이야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으리요 - 작자 미상

2 대조의 유형

- 색채의 대조
- 계절의 대조
- 이미지의 대조
- 자연과 인간의 대조
- 과거와 현재의 대조

바다 위에서 도사공이 처한 위험의 정도를 점점 심화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한 도사공의 마음보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01 강조

[01~02]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을 못 봐어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가지 않고 어찌할 것인가
— 이황, <도산십이곡>

(나)

국화가 너는 어이 삼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 낙목한천(落木寒天):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의 춥고 쓸쓸한 풍경. 또는 그런 계절
- * 오상고절(傲霜孤節):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

01 (가)에는 앞 구절의 시어를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하는 (연쇄 / 점층)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

02 (나)는 (과장법 /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03~06] 다음 글과 <보기>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시오.

명황(明皇)은 귀비(貴妃)를 죽어서나 여의었으니
서럽다 서럽다 한들 우리같이 서러울 것인가
살아서 못 보니 더욱 망극하다
수심*은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니
저절로 난 그 불이 남의 탓도 아니로다
(중략)
알고자 한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헤어질 때 검던 머리 희도록 못 보시고
사랑은 생각이 없어 늙어가는 것을 모르는가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 수심: 매우 근심함. 또는 그런 마음

<보기>

<상사곡>은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충신연주지사'이다. 작가는 반복과 대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03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04 색채의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여 나타내고 있다. (○, ×)

05 임의 특징을 드러내는 시어를 열거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

06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시어를 연쇄적으로 늘어놓아 화자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 ×)

02 변화

[07~09]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시오.

옛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말해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뎀다
부생모육(父生母育) 고생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長安) 유협(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쩍 지나 조물(造物)이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배울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 허난설헌, <규원가>

[0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 천달이의 안부를 모르는 양 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달이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 들었고, 희뜩희뜩 눈 앞사귀가 휘날려 왔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랑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랑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매어 불렀다는 것이다.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다. 하루는 또 총을 멘 순경 한 사람과 먼 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 지난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살*을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는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얼마 후에 천달이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천달이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우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발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윽!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건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가? 그렇잖으면 ㉢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껌벅거리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도 수만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이크!”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뿡!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A]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옴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닻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달는다.

㉤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냇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요——”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씹 훔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끼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쭐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끼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샷대질을 해쑹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람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저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냐? ㉦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골무살: ‘골목’의 사투리

① 중심인물, 배경 파악하기 / 내용 정리

◆ 정답: 해설 3P

• **중심인물:** 1

공간적 배경: 2

시간적 배경: 3

• ① 처음 ~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전

전쟁에 징용되어 마을을 떠나는 젊은이들

②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 ~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순경과 양복쟁이가 오는 모습을 본 삼바우

③ “좋은 수고말고!” ~ 오스스 떨리어 왔다.

순경과 양복쟁이가 4 (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뱃길을 끊은 삼바우

06 ② 중심 사건, 갈등 파악하기 2027 대비 6월 모평 18(고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 ②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 ③ 모랑댁은 두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 ④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다.
- ⑤ 갑분이는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07 ③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결하고 짧은 문제를 주로 활용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방언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사실감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여러 인물의 회상을 활용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08 소재 및 배경의 의미 파악하기 2027 대비 6월 모평 19(고3)

㉠, ㉡의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 ② ㉠은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 ③ ㉠은 적대적 인물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은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중심인물의 능동성이 부각되는 나룻배와 차이가 있다.
- ⑤ ㉠의 시기에, ㉡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09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2027 대비 6월 모평 20(고3)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②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어지는 것은 상대가 ‘뜨겁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③ ‘손가락들이 제가꿈’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④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핏’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⑤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10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2027 대비 6월 모평 21(고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 ①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②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③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끼’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⑤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오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어휘 풀이

- **영장**: 명령의 뜻을 기록한 서장
- **불구**: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할. 또는 그런 상태
- **전사하다**: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다.
- **땃줄**: 땃(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을 매다는 줄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을 입어
[A]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
소서.”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젖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소 글을 좋아하시
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는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낭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B]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 측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낱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도문: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01

2024 대비 9월 모평 19(고3)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어짐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02

2024 대비 9월 모평 20(고3)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2024 대비 9월 모평 21(고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DAY
16



어휘 + 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 표시하고, 헛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 표시하세요.

ㄱ

- ㄱ **가인**[佳 아름다울 가 人 사람 인]
아름다운 사람
예 꿈에서 본 **가인**을 잊지 못하다.
- ㄱ **각광**[脚 다리 각 光 빛 광]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
예 **각광**을 받고 있다.
- ㄱ **간결체**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내용을 명쾌하게 표현하는 문체
예 이 작품은 **간결체**로 쓰인 것이 특징이다.
- ㄱ **감내**[堪 견딜 감 耐 견딜 내]하다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
예 고통을 **감내**하다.
- ㄱ **감정 이입**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예 피프리에 **감정 이입**을 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ㄱ **갑절**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예 동생의 몸무게가 나보다 **갑절**이나 무겁다.
- ㄱ **강권**[強 강할 강 勸 권할 권]하다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다.
예 친구에게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강권**하였다.
- ㄱ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대상
예 이 시에는 귀뚜라미가 **객관적 상관물**로 등장한다.
- ㄱ **거간**[居 살 거 間 사이 간]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임.
- ㄱ **결태질하다**
(낮잡는 뜻으로) 염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재물 따위를 마구 굶어모으다.
- ㄱ **격서**[檄 격서 격 書 글 서]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 ㄱ **경각심**[警 경계할 경 覺 깨달을 각 心 마음 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 ㄱ **경황**[景 경치 경 況 상황 황]
정신적·시간적인 여유나 형편
예 일이 많아서 점심 먹을 **경황**도 없다.
- ㄱ **고사 인용**
옛날에 있었던 일을 끌어 쓰는 것
예 **고사 인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ㄱ **고즈넉하다**
고요하고 아늑하다.
예 주변에 인적이 없어 아주 **고즈넉하다**.
- ㄱ **곡배**[曲 굽을 곡 拜 절 배]하다
임금을 뵈고 절을 하다.
- ㄱ **곡절**[曲 굽을 곡 折 꺾을 절]
순조롭지 아니하게 얹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
예 많은 **곡절**을 겪다.
- ㄱ **골방**[房 방 방]
좁고 구석진 방을 이르는 말
예 휴일 동안 홀로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 ㄱ **공[空 빌 공]것**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물건
예 그는 **공것**을 아주 좋아했다.
- ㄱ **공납**[公 공변될 공 納 들일 납]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조세를 내는 일
예 모든 국민은 **공납**의 의무가 있다.
- ㄱ **공비**[共 함께 공 匪 대상자 비]
공산당의 유격대
예 **공비** 소탕 작전에 나서다.
- ㄱ **공해**[公 공변될 공 害 해로울 해]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
예 각종 **공해**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 ㄱ **과장**
표현하려는 대상을 실제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방법
- ㄱ **괴변**[怪 기이할 괴 變 변할 변]
예상하지 못한 괴상한 재난이나 사고
- ㄱ **구년지수**[九 아홉 구 年 해 년 之 갈 지 水 물 수]
오랫동안 계속되는 큰 홍수
예 흘린 눈물이 모여 **구년지수**가 되었구나.
- ㄱ **구문**[口 입 구 文 글월 문]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 ㄱ **구병**[救 구원할 구 病 병들 병]하다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들다.
- ㄱ **군정**[軍 군사 군 丁 고무래 정]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
- ㄱ **궁[窮 다할 궁]티**
궁한 모양이나 태도
예 **궁티**를 벗고자 노력하다.
- ㄱ **귀순**[歸 돌아올 귀 順 순할 순]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
예 북한 병사가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 왔다.

- ㄱ **규중**[閨 도장방 규 中 가운데 중]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예 깊은 **규중**에 들어 있어 바깥소식을 몰랐다.
- ㄱ **극열**[極 지극할 극 熱 더울 열]하다
몹시 뜨겁다.
- ㄱ **기식**[寄 부칠 기 食 먹을 식]하다
남의 집에 붙어서 밥을 얻어먹고 지내다.
예 그는 형의 집에서 **기식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 ㄱ **기인취물**[欺 속일 기 人 사람 인 取 취할 취 物 만물 물]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음.

ㄴ

- ㄴ **낙인**[烙 지질 낙 印 도장 인]
다시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럽고 욕된 판정이나 평판을 이르는 말
예 사람들은 그에게 구두쇠라는 **낙인**을 찍었다.
- ㄴ **남여**[藍 쪽 남 興 수레 여]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
- ㄴ **내재물**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 자유시나 산문시와 같은 현대시에서 주로 나타난다.
- ㄴ **넉출**
길게 뻗어 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
예 푸른 **넉출** 사이로 하얀 박들이 매달린 모습이 눈에 띄었다.
- ㄴ **노엽다**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예 할아버지는 **노여운** 얼굴을 애써 감추셨다.
- ㄴ **녹양방초**[綠 초록빛 녹 楊 버들 양 芳 꽃다운 방 草 풀 초]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 ㄴ **농[弄 희롱할 농]지거리**
점잖지 아니하게 함부로 하는 장난이나 농담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악의에 찬 **농지거리**를 던지다.

ㄷ

- ㄷ **단념**[斷 끊을 단 念 생각할 념]하다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 버리다.
예 이대로 우승을 **단념**할 수는 없었다.
- ㄷ **달갑다**
거리낌이나 불만이 없어 마음이 흡족하다.
예 웬지 그 일을 하기가 **달갑지** 않다.